

전남도, '블루 농수산 비전' 달성 탄력... 국비 1천151억 확보

농축산식품을 상반기 공모 선정... 블루이코노미 박차 100억 이상 국비 투입 국가대형프로젝트 4개사업 선정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올 상반기 공모사업에서 14개 사업이 선정돼 1천 15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국비가 투입될 국가 대형프로젝트 4개 사업이나 선정돼 '전남 블루 농수산' 비전 달성을 한 단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정사업은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350억원 ▲2020 농촌협약 시범도입 300억원 ▲2021 농촌 신활력 플러스 196억원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5억원 ▲2021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87억원 ▲2020년 GAP 시설보완 사업 4억원 등이다.

특히 최근 장성 삼계면에 유치 확정된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전라남도가 범국가적인 아열대작물 재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결과로,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농업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지구 등 총 3개 분야 1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385억원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도 300억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17억원

을 비롯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1억 5천만원, 라이스랩 운영사업 1억원 등 올해 국비 118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침체된 농업과 농촌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천 15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은 전라남도가 블루 농수산 핵심사업 등 미래농업 기반 구축과 관련된 중앙 공모사업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며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전남도 농업분야의 국비예산은 6천 29억원으로 국비 의존률이 68.4%에

달한다.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2021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와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김정관 기자 kissout@

5·18행불자 반드시 찾는다

6일부터 신청자 36명 혈액 채취 혈액·유골 유전자 정보 비교 분석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과 함께 5·18행방불명자(이하 '5·18행불자') 가족 찾기를 위해 7월부터 혈액 채취와 유전자 분석에 들어간다.

5·18행불자 가족 중 혈액 채취를 신청한 36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4주 동안 혈액을 채취한 후 유전자 분석을 할 계획이다.

유전자 분석 결과는 발견된 유골의 유전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행불자 가족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 합장묘에서 신원 미상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곧바로 5·18행불자 가족 찾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사·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적으로 행불자 가족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지난 5월29일까지 최종 36명이 접수했다.

윤목현 시 민주시민정책기획관은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6개 과제에 5·18행불자가 포함돼 있다. 이는 국가적·역사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활용해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5·18행불자 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54가족 334명에 대한 혈액 정보를 확보하고 전남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보관하고 있다.

/김태엽 기자

전남도, 정부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 사업' 지원

산업부 2천억 편성... 정기적인 발전수익 창출 기대

전라남도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지원 사업' 참여를 위한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관리중인 산업단지 내 공장·주차장 지붕을 비롯 개별입지 공장건축물, 공장 내 유휴부지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용자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최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일환으로 국비 2천억 원을 올해 정부 3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용자는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1.75% 변동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정기적인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의 분석결과 공장과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99kW 설

치비용 1억 4천 850만원 중 자부담으로 10%를 투자하면 20년간 2억 4천 157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3천kW 설치비용 45억 원중 10%를 자부담하면 20년간 73억 2천 38만 원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희망한 사업자는 오는 7월까지 사군 에너지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인허가 절차와 용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1855-3020)으로 문의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지원 사업을 통해 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미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1일 오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참석해 박양우 문화부 장관, 정동채 조성위원장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8기 8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활동 시작

민간위원 15명 위촉... 사업 방향 등 심의·자문

광주광역시는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위촉식에서 정동채 위

원장, 송진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조성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8기 조성위는 위촉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조성위원 중 민간위원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등 15명이 위

촉됐다. 이들은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용섭 시장은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전당 일부위탁 운영기간 5년 연장, 아북법 사업기간과 유효기간 5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전남도, '코로나19' 25번째 확진... 해외입국자

전라남도는 1일 '코로나19' 전남 2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자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입국한 30대다. 지난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을 이용해 목포역에 도착, 곧바로 보

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오후 3시께 검체 채취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 검사 결과 이날 오후 10시 30분 최종 '양성' 판정 받고, 현재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중이다. 별다른 증상은 없는 상태다.

/박정오 기자

전남도민일보 7월 17일
창사 20주년
 코로나19 관계로 행사는 추후 공지

그린알로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